

'선을 넘는 녀석들', 자체 최고 시청률+호평 속 종영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이 최종 탐사자인 한반도 최북단 DMZ 비무장지대를 지나 예능 최초로 휴전선의 모습을 담으며 안방극장에 뜨거운 여운을 전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인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전선을 넘을 수 있는 진짜 평화의 시기를 염원하며 마지막 탐사를 마무리했다.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은 우리의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총망라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유아적이고 감동적인 6주간의 한반도 탐사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시청률도 급상승 해 분당 최고시청률은 10.1%로 두 자릿수를 돌파, 시즌 자체 최고를 경신했고 2049 시청률에서는 시즌 전 회 연속으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시청률과 시청자의 호평 속 시즌을 종영,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다.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 6시 15분에 방송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 (연출 정윤정) 마지막회

에서는 신녀들이 철원에 남아 있는 노동당사와 이들의 최종 탐사자인 한반도 최북단 DMZ에 입성, 꿈에 그리던 휴전선을 찾은 모습이 공개됐다.

2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 마지막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1부가 5.2%, 2부가 8.3%로 2부에서 시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분당 최고시청률은 10.1%(19:38)까지 치솟으며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또한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는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으로 1부가 1.9%, 2부가 3.0%, 분당 최고 시청률은 3.8%(19:38)를 기록, 시즌 전 회 연속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번져 본격적인 철원 탐사에 앞서 국제정치 전문가 김지운 박사가 스페셜 신녀로 합류해 광복 후 분단이 된 국제정치학적 배경과 6.25 전쟁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운 박사는 "당시 한국은

국제사회의 인준을 얻었던 곳"이었던 반면 "되게 마음이 아픈 것은 미국에서는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후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배경이 된 노동당사를 찾았다. 남과 북 두 체제를 오롯이 삶으로 마주하며 탄압을 겪은 철원 주민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 먹먹한 모습을 보였다. 멤버들은 통일을 이야기하는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 배경인 노동당사 앞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춤을 추 웃음과 의미를 남겼다.

마침내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의 최종 탐사자인 DMZ를 찾았다. 민간인은 물론이고 군인들도 철저히 통제된 비무장지대 DMZ, 그곳에 자리한 화살머리고지는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였다. 70년여의 분단의 아픔 속 역사적으로 비무장지대 DMZ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 됐다.

긴장과 설렘 속에 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나 DMZ로 향하는 마지막

예능 최초로 휴전선 모습 담으며 여운 전해

관문인 남북한계선 앞에선 신녀들은 방탄모와 방탄복을 입고 민반의 준비를 했다. 출입승인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실감이 잘 안 난다"며 한껏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긴 기다림 끝에 남북한계선을 지나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이자 백마고지와 함께 한반도 중부 군사요충지인 화살머리고지를 찾았다.

설민석은 "휴전협정까지 1년 반이 걸렸는데 현재 전선대로 영토가 정해지니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다"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전했다. 6.25 전쟁 중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비극의 격전지이지만 비무장지대가 되면서 남북 모두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다. 남북 유해 공동발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수를 내던진 영웅들이 70여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새겼다.

신녀들은 화살머리고지 GP에서 6.25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공포와 아픔에 공감하며 안타까워했다. 유해 발굴 현장에서 6.25 전쟁 당시 유품과 장비들을 보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특히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중요하다는 설명에 6.25 전사자 유해 확인을 위한 DNA 시료 채취에 관심을 많이 가져 서로 전했다. 문근영은 "시간이 참 많이 지나버렸다"면서 세월이 지나 유해 확인이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이들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이어진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통해 한반도의 마지막 신인 휴전선으로 향했다. 금단의 신이자 평화의 신인 휴전선 100미터 앞까지 다다른 신녀들은 정

면으로 보이는 북한 땅에 말을 잊지 못했다. 보고도 믿지 못할 생경한 광경 앞에 설민석은 "가슴이 떨린다"면서 박찬 감정을 표현했다. 전현무는 "데어너서 북한땅을 이렇게 가까이 본 게 처음"이라면서 고작 100미터를 더 가지 못해 멈춘 분단의 현실을 짚었다.

문근영은 "신의 실체를 보니까 '신'이라는 게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임의적으로 고여 놓은 신인데 우리는 왜 넘을 수 없을까"라고 신에 대해 고민하는 때 때리는 질문을 던졌다. 전현무는 "철조망이 있고 장벽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도로까지 개설되니까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방송은 책임감과 사명감 가지고 한반도의 선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진심을 다해 표현했다.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생생한 현장을 본 전현무는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지 몰랐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녀들은 다음엔 꼭 지금 넘지 못한 휴전선을 넘길 바라는 마음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돌아섰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돼 언젠간 모든 국민이 선을 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설민석은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휴전선을 앞두고 쓸쓸히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불굴한 소감을 밝혔다.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은 6주 동안 한반도의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펼쳐진 역사의 현장을 강하게, 제주도, 일본 그리고 강원도 철원 DMZ, 최종 목적지인 휴전선을 탐사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를 되짚었다.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순간들을 접하며

깊은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한반도의 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노려온 영웅들의 발자취는 패배 시청자들을 울렸다.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정보와 함께 열정적인 역사 길라잡이 역할을 특출하게 했던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유병재, 다니엘 린데민의 환상적인 케미도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를 더했다.

'보고 보는 MC' 전현무는 재치 있는 진행과 뛰어난 관찰력으로 프로그램의 탄탄한 구성적 역할을 했고 '특급 역사 강사' 설민석은 탐사를 주도하며 생생한 역사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역사 잘 아는 누나' 문근영은 형광펜 누나로 불리며 열정적인 탐사 준비와 올곧은 역사 의식 그리고 개성 넘치는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역사 설명 로봇' 유병재의 재기발랄하고 감성적인 말솜씨를 전현무, 문근영 등과 찰떡 호흡을 보여주며 재미를 선사했다. '대한독일인' 다니엘 린데만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면모로 매번 놀라움을 안겨주며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들과 함께 강화도에서 근현대의 삶이 있는 중인 김영욱, 제주도의 아픔을 함께 나눈 고두심, 바다 건너 일본 탐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최희서, 마지막 철원 탐사의 의미를 전해준 국제정치 전문가 김지운 박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신녀들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발로 터는 탐사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한반도 편'은 지난 2월 16일 첫 방송된 후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신들이 생기기 되기까지의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냈다.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유병재, 다니엘 린데만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23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 종영했다.

'열혈사제' 현실풍자, 뜨거운 반응



드라마 '열혈사제' 현실 꼬집기에 사이드 엔딩까지, 제대로 터졌다. '열혈사제' 이하늬를 구하는 김남길의 엔딩 장면이 최고 시청률 21.3%를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3일 방송된 SBS 금드라마 '열혈사제' (극본 박재범/연출 이명우/제작 산하네트웍스) 23회는 수도권 시청률 16.7%, 전국 시청률 14.8%, 24회는 수도권 시청률 19.6%, 전국 시청률 17.9%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은 23회 6.9%, 24회 8.6%를 나타냈고, 23회 수도권 시청자수는 1,882,000명, 24회는 2,271,000명을 기록, 수치에 신뢰도를 크게 부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정원 대테러 특수팀 최고 요원이었던 김해일(김남길 분)의 정체가 밝혀진 가운데, 그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김해일의 활약이 그려졌다.

김해일의 과거 국정원 상관이었던 이종권(김재현 분)의 등장엔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종권은 카르텔 강박대(김형욱 분)에게 협조, 김해일의 특수요원 신분은 폭로했다. 또한 김해일을 찾아가 과거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또 엉뚱한 사람들 죽이면 어떡할래? 혼자 용서해야 달라지는 건 없다"며 협박을 가했다.

김해일은 절대 물러나는 법이 없었다. 이종권의 등장으로 정보력에서 밀린다고 판단, 구대영(김성균 분)과 함께 대책을 세웠다. 이에 이종권이 된 구대영은 중환자실에 있는 박의원(한기중 분)을 제거하려는 카르텔의 계획을 알아냈다.

김해일은 박의원의 병실로 찾아가 괴환을 처리했다. 그러나 카르텔의 계획은 박의원 살해뿐만이 아니었다. 박경선(이하늬 분) 역시 제거 대상이었던 것.

괴환이 박경선을 칼로 찌르려 할 때, 장문을 꺼고 들어와 박경선을 구해내는 김해일의 모습은 멋지고 짜릿했다. 시원시원한 액션은 물론,

위기의 순간 나타난 김해일의 활약은 사이드 엔딩을 선사했다. "괜찮아요?"라고 묻는 김해일과 그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는 박경선의 엔딩은 순간 최고 시청률 21.3%까지 치솟으며, 이날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서장과 클럽 '라이징문'의 유착관계를 조사하는

박경선의 모습은 현실 뉴스를 떠오르게 했다. 박경선은 라이징문의 실소유주가 구담구 카르텔이라는 것, 그리고 클럽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필로폰이 들고, 많은 연예인과 재벌2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거대 땅굴이네"라고 말하며 기막혀하는 박경선의 모습이

현실 풍자를 보여줬다.

이날 '열혈사제'는 신들린 현실 풍자부터 핵사이드 엔딩까지 제대로 터뜨리며 안방극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악의 편에 섰던 박경선의 변화도 예고되며, 향후 더욱 짜릿해질 전개에 대한 기대도 증폭시켰다.

다.

또 '캡틴 마블'은 전세계 수익은 주말 중 9억 불 돌파 예상, 한화로 무려 1조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흥행 기록까지 세우게 되었다.

북미에서만 흥행 수익이 3억 불 돌파한 영화 '캡틴 마블'은 전세계 흥행 돌풍에 힘입어 마블을 대표할 차세대 히어로 데뷔일 뿐 아니라 흥행 캡틴으로도 자리매김했다.

뉴스스

'캡틴마블' 개봉 18일째 500만 돌파

'캡틴 마블'이 개봉 18일째 500만 명을 돌파했다.

영진위 통합전시장 집계 따르면 영화 '캡틴 마블'이 23일 17만 8,433명을 모으면서 누적 관객 수 509만535명을 기록했다.

개봉 18일째 500만 명을 돌파한 '캡틴 마블'은 앞서 개봉 3일째 100만, 개봉 4일째 200만, 개봉 5일째 300만, 개봉 11일째 400만 관

객을 모으는 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속도는 마블 솔로 무비 중 역대 흥행 1위 '아이언맨3' (2013)와 '스파이더맨: 홈커밍' (2017)에 이은 것이자 '닥터 스트레인지' (2016)보다 빠르다.

더불어 2019년 개봉작 중 '극한직업'에 이어 첫 500만 관객 돌파작 탄생과 함께 2019년 영화 최고 흥행 신기록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음력 2월 19일)



▶**직장인** 1, 2, 7, 10월생은 성실한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구나.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으니 힘이 솟고 일할 의욕도 고조될. 사, 자, 첫 성씨는 아들보다 딸 농사를 잘하면 아들에 대한 기대이상으로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혼자서 하기엔 힘이 겨운** 이때. 사, 자 성씨가 우연찮게 도와 준 것이 인연이 되어 3, 4, 6, 7월생은 동업을 할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려서 힘들더라도 혼자 힘으로 이루는 것이 좋다. 다, 비 성씨는 마음 약해진 때이니 유혹 조심.



▶**자만만 버린다면 뜻밖의** 성취하는 행운의 날. 2, 4, 6, 10월생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말을 삼키면 좋을 듯. 가, 오, 자 성씨는 평소의 보조를 지키고 탈선하지 말라. 특히 여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면 뜻밖의 장애에 부딪힌다.



▶**2, 4, 6, 10월생** 일상천리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신념을 굽히지 말고 내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임. 가, 다, 흥 성씨는 대인관계 시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자는 독약과 같은 것이고 따듯한 충고를 하는 자는 보약이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괴롭더라도 가, 다, 자 성씨는 의연한 자세로 역경을 이겨야 한다. 앞으로는 사업 외에 무모한 투자는 하지 말 것. 4, 5, 6월생은 동쪽에서 만나는 사람과는 좋지 않은 일만 생길 듯.



▶**2, 3, 9, 11월생** 기혼여성엔 욕심 때문에 빚이 물려서 집을 떠나야 하는 위기까지 올 수 있으니 조심. 계획도 없으면서 허영으로 가득 차 있기에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를 자초하는 경.



▶**거북이** 토끼를 따라 잡은 우화처럼 2, 3, 5, 7월생은 끈기 있게 인내하면 최상의 길이 있다. 뭉가 잃은 듯한 속마음은 욕심 때문이라. 힘겨울 때 만나 제쳐두고 여행이라도 떠나 봄이 어떨지. 상황이 복잡해도 마음의 재충전은 될 듯.



▶**매사** 느긋한 자세로 참고 노력하라. 그러면 2, 4, 11, 12월생은 조만간 뜻밖의 바를 성취할 수 있겠다. 작은 이익으로 대어를 놓치는 건 어리석은 일. 사소한 손익계산에 피곤하게 매달리지 말 것. 금전관계로 연쟁이 있을 듯.



▶**새가** 동지를 떠나 방향하는 경. 1, 7, 10월생 사냥가 고전을 하더라도 좌절은 아직 이르다. 다, 비, 표성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고민하는구나. 애정문제의 고통이 길게 이어지면 곤란함. 길이 아니면 단념하는게 서로를 위하는 일.



▶**희망을 가져라.** 1, 2, 11, 12월생은 빛이 보인다. 어제의 고달픈 일들로 오늘 웃음꽃을 피울 듯. 사업은 욕심을 부려도 될 때이며 투자가 또한 길하다. 가, 다, 흥 성씨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노력을 계속하라. 인간성을 평가 받는다.



▶**인생엔** 연습 과정이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개척하고 터득해 나가야 할 크나 큰 과제가 곧 삶이다. 3, 4, 9, 11월생 장남 또는 장녀인 당시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부모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만 상할 뿐이다.



▶**매사** 과욕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으니 7, 8, 9월생은 정도를 지켜라. 노란색 옷은 애정적으로 불만이나 불운을 초래하는 격이니 입지 말 것. 서쪽이 길하고 물놀이를 조심함이 좋겠다. 가, 오, 자 성씨는 금전으로 고민할 수 있다.